



**가을을 가로지르며 나아가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길 위에서 온갖 날씨와 마주해야 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땀방울에 땀을 흘렸으며, 한밤 뚝 떨어진 기온에 텐트 안에서 오돌오돌 떨기도 했다. 때로는 종일 내리 쏟아지는 빗속을 묵묵히 걸어야 했다. 그래도 시월은 시월이다. 짙은 먹구름이 걷힌 뒤 내리는 더욱 풍성한 빛깔의 가을로 순례대중을 반기기 시작했다. ▶ 관련기사 4면 김현태 기자

## 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 극복에 머리 맞댔다

10월14일, '한국불교 미래 포교의 길' 주제로 토크콘서트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 성공적으로 이끈 모범사례 등 소개

“탈종교화 추세와 맞물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포교현장에서 잘 활용한다면 결코 한국불교의 미래가 어둡다고만 볼 수 없다.”(구례 화암사 주지 덕문 스님)

“미래 포교의 성패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사찰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김해 동림선원 전조 스님)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대중들이 불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10월14일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경남 부곡 로얄관광호텔에서 개최한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 토크콘서트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

리였다.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머리를 맞대 숙고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달라지고 있는 포교현장’을 주제로 여러 모범적인 포교사례들이 소개됐다. ‘요가축제’ ‘모기장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산중사찰의 한계를 극복한 구례 화암사 주지 덕문, 신도교육과 명상프로그램을 활용한 어린이명상학교로 도심포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해 동림선원 어린이명상학교 지도법사 전조, 문화예술법인 ‘쿠무다’를 설립해 사찰을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참석했다.

덕문 스님은 “산중사찰이 도심사찰과 달리 지역적 한계로 포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산사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환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포교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각 사찰이 주어진 환경여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덕문 스님



전조 스님



주석 스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명상학교 성공사례를 소개한 동림선원 전조 스님은 “우리 선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우선 명상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이 교육을 받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사찰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교육을 받은 대학생, 청소년들이 다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어린이 및 청장년세대들이 함께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동림선원이 도심포교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쿠무다를 부산지역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주석 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포교를 제안

했다. 2013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출발한 쿠무다는 문화예술법인으로 탈바꿈한 뒤 불교문화예술인을 위해 무료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불교문화예술인 및 예술대학 후원을 통한 장학사업과 인재 양성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주석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불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포교는 침체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2부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구교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신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포교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3부 수평의 길, 포교의 길로 이어졌다.

▶ 관련기사 5면  
 부곡=권오영·김민아 기자

## ‘사찰·불교계 매도’ 정청래 의원 발언에 공분 확산

문화부장 성공 스님, ‘1인시위’

“의원 사퇴·민주당 출당” 요구

종회·중앙신도회·해인사 등 성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리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똥이 김선달’로 매도해 불교계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에 이어 중앙신도회, 해인사·신도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정청래 의원 사과”를 촉구했고,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성공 스님은 10월13일부터 서울 마포 정청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묵탁을 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해 문화재관리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국립공

원에 강제 편입된 사찰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사실은 외면하고 오히려 불교계와 스님들을 ‘똥이 김선달’로 매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을 무시한 정 의원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며 “불교계를 매도한 정청래를 출당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성공 스님은 정 의원의 공식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12일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발언은)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특히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성명에서 “한 나라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유지,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국

가가 나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의원이자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국민적 불편과 비난을 해결한 소영웅처럼 치부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의장단은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청래 의원의 용졸한 문화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 보존과 유지 계승을 위한 특단의 개선택 마련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2면에서 계속  
 권오영·김내영·윤태훈 기자  
 대구지사=윤지홍 기자

## 비구니회 ‘공존위’ 결성 불교유적가톨릭화 대응

전국비구니회가 광주시의 가톨릭성지 순례길 추진을 계기로 불교유적에 대한 가톨릭 성지화를 근절시키고 다종교사회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가 10월 1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갖고 ‘주어사·천전암 종교공존위원회(이하 공존위)’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추진이 가능했던 배경과 원인, 유사 사례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공존위는 10월26일 ‘가톨릭 불교역사 지우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병두 종교평화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11월29일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도 개최한다. 또 천전암과 주어사에 대한 현장 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3면에서 계속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

# 새로운 인연 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은 불자수 감소 위기에 직면 한 때,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수익금은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 단체에 전액 지원됩니다. 포교 마중물이 되는 불사에 수희동참 바랍니다.

전시기간 : 11월2일(화)~8일(월)

장 소 : 동국대학교

개막식 : 11월 2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4층

주 최 :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  
 주 관 : 동국대학교, 아름다운동행, 상월결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 BBS불교방송, BTN불교TV  
 후 원 : ☎ 대한불교조계종